

MY BIBLE FIRST B29

일몰과 일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때에 맞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때에 맞게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목차



01 성경말씀 회상하기

02 중심생각 연결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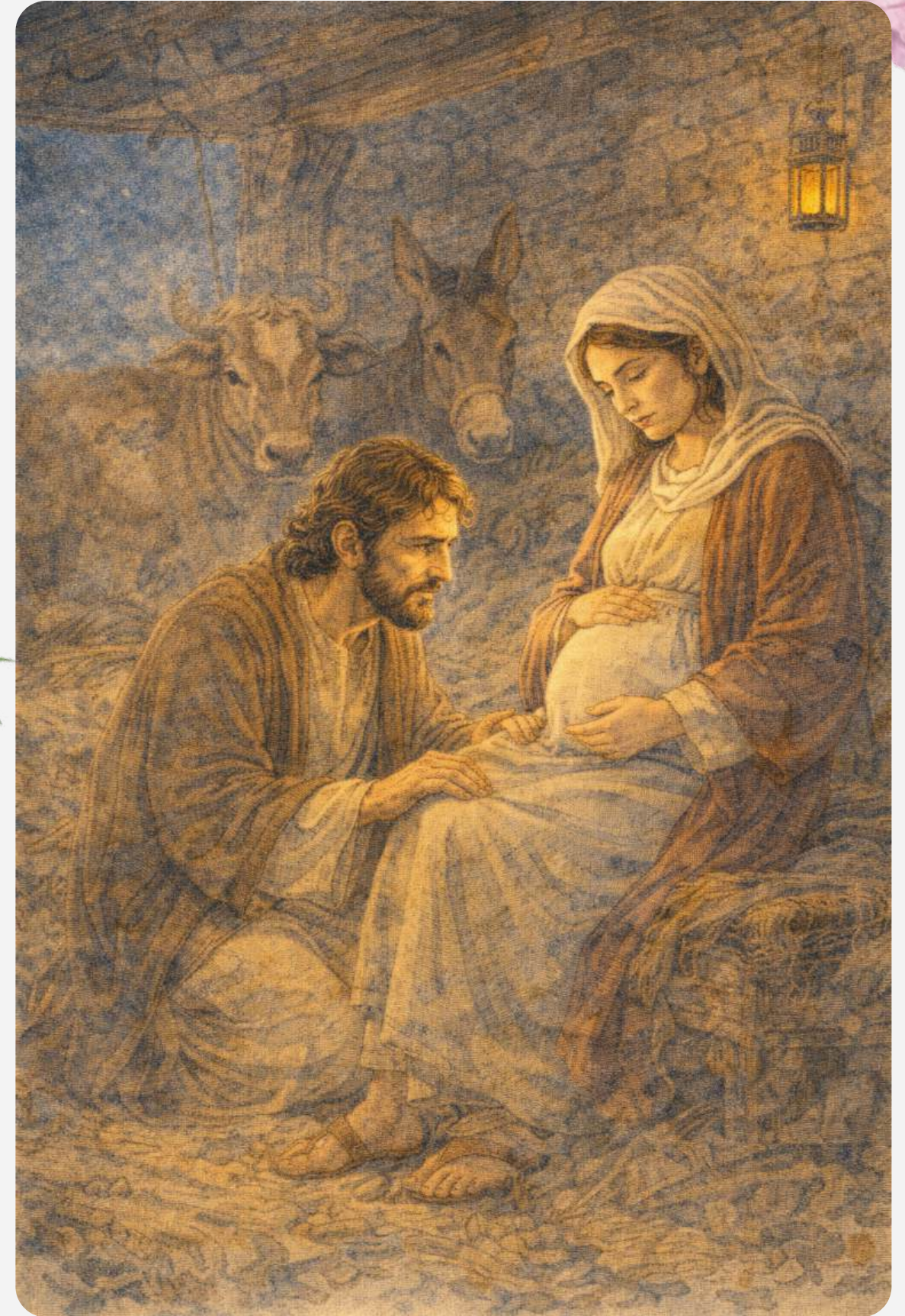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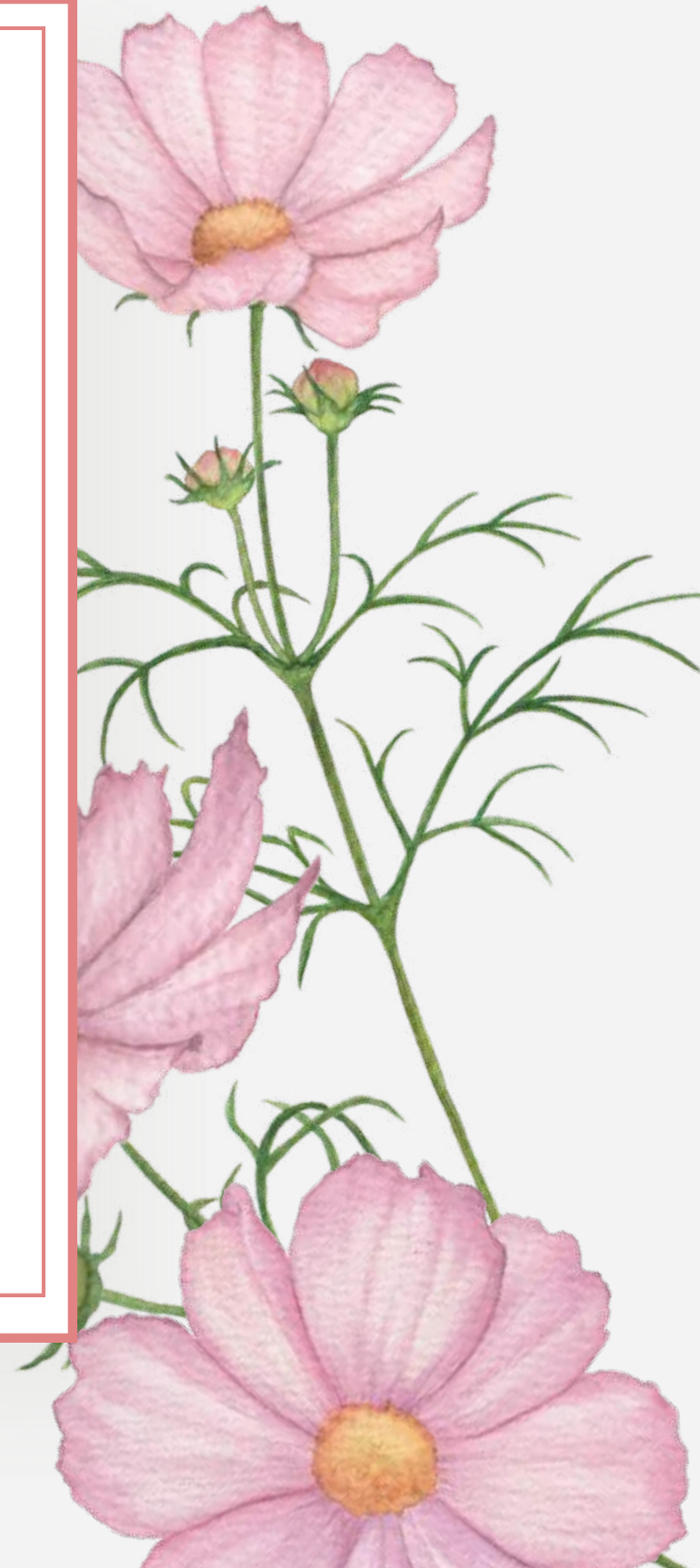
03 천연계로 확장하기

04 성경학습활동 1

05 성경학습활동 2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에서
잘 곳을 찾았지만,
빈방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기는 곧 태어날 것 같아서
두 사람은 많이 걱정했지요.

그래서 가축들이 있는
마구간에서 머물게 되었어요.
불편한 곳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어요.



요셉은 등불을 빌려오고, 마리아가
누울 곳을 준비했어요. 마리아는
아기를 감쌀 천도 미리 준비해 왔지요.
그런데 아기는 어디에 눕혀야 할까요?

요셉은 동물들이 풀을 먹는 구유를
깨끗이 준비했어요. 그 구유가 아기 예
수님의 작은 침대가 되었어요.

(누가복음 2:7)



어두운 마구간에서 마리아와 요셉은
아기 예수님을 조용히 바라보았어요.
동물들도 작은 소리를 내며 함께 있었어요.

하늘에서는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노래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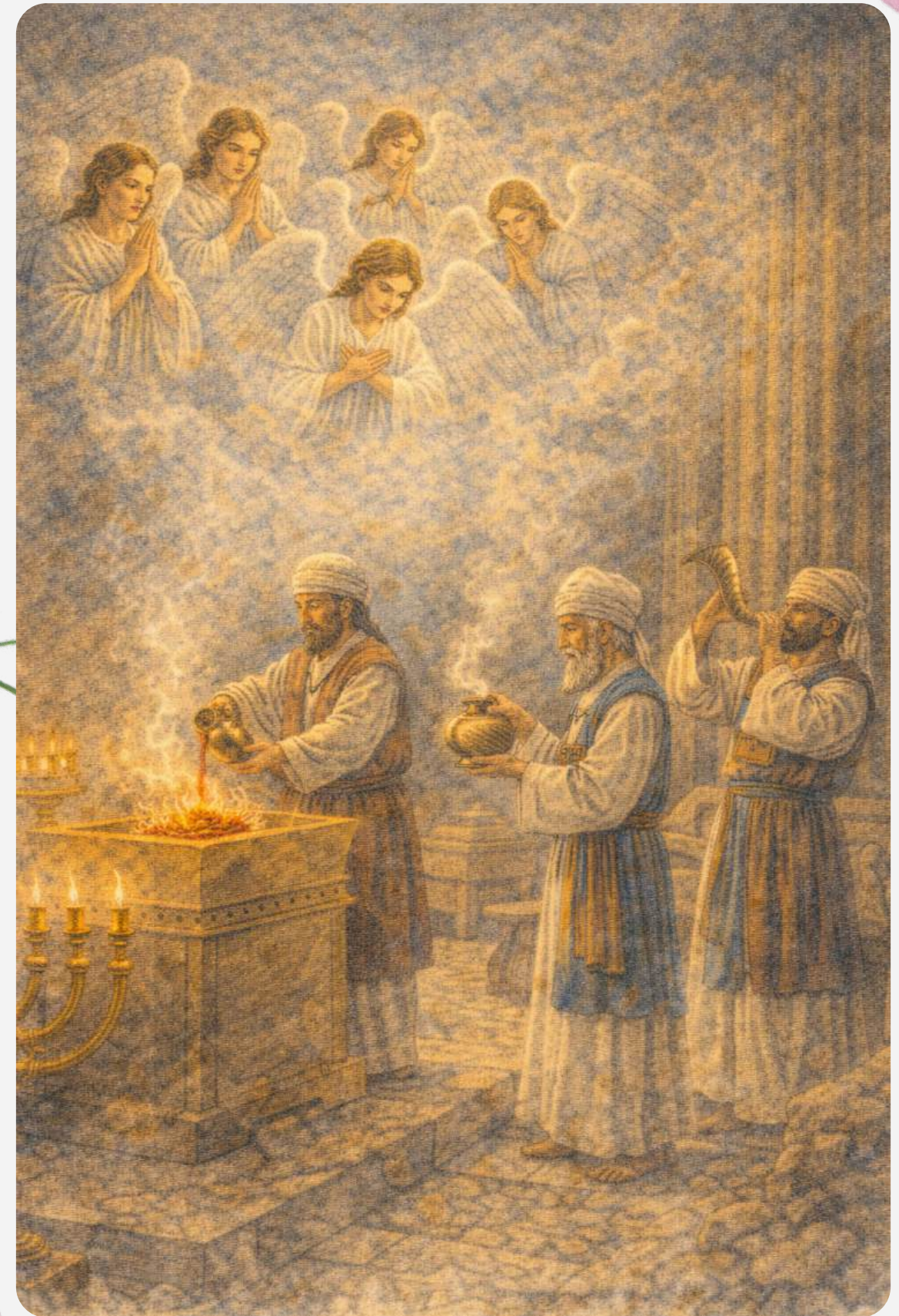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실 길이 열렸어요.



이 멋진 일을 모두가 기뻐한 건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랐거든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던 사람들도
그 제사가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걸
잊고 있었어요.

하늘은 기뻐했지만,
땅에서는 거의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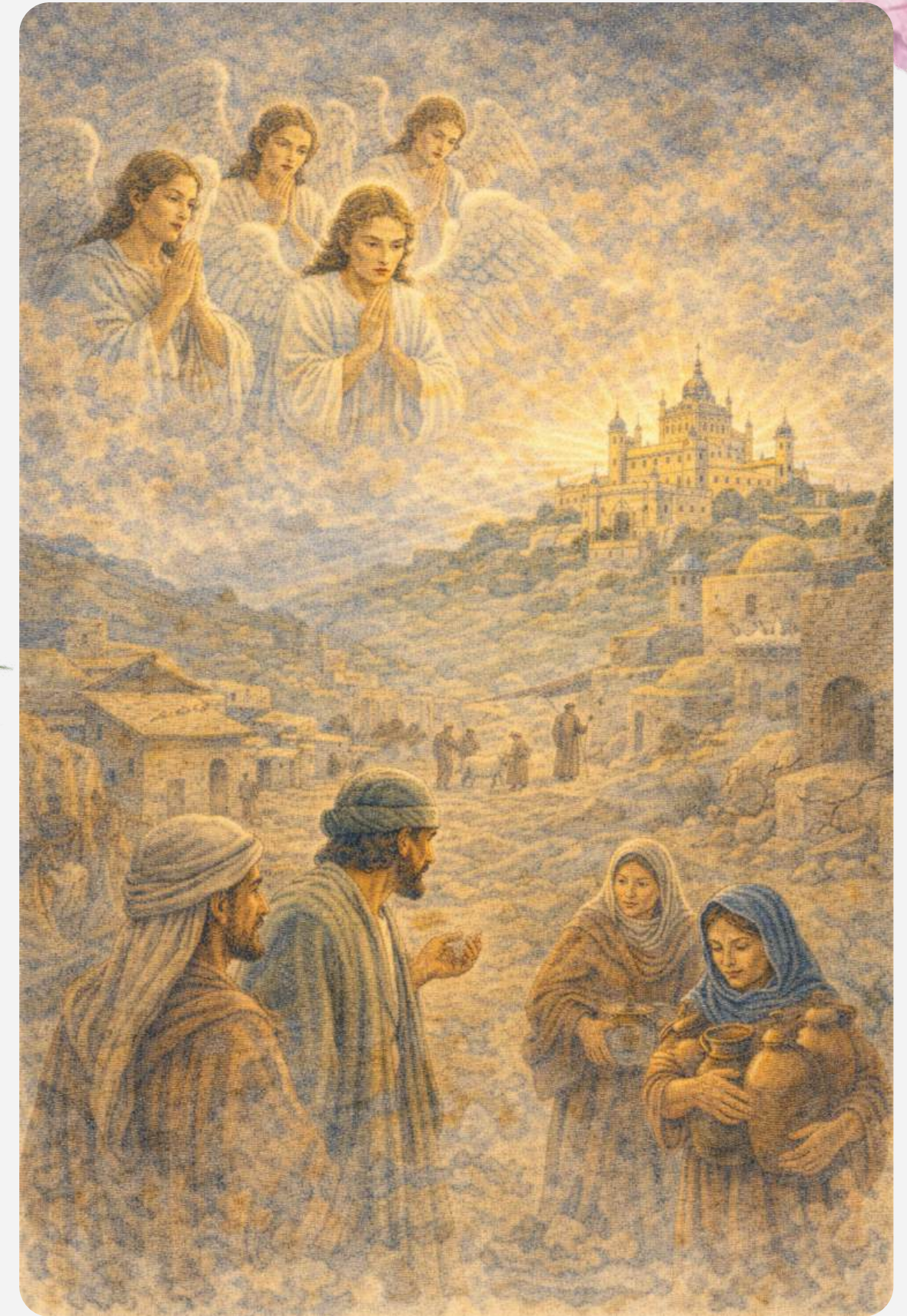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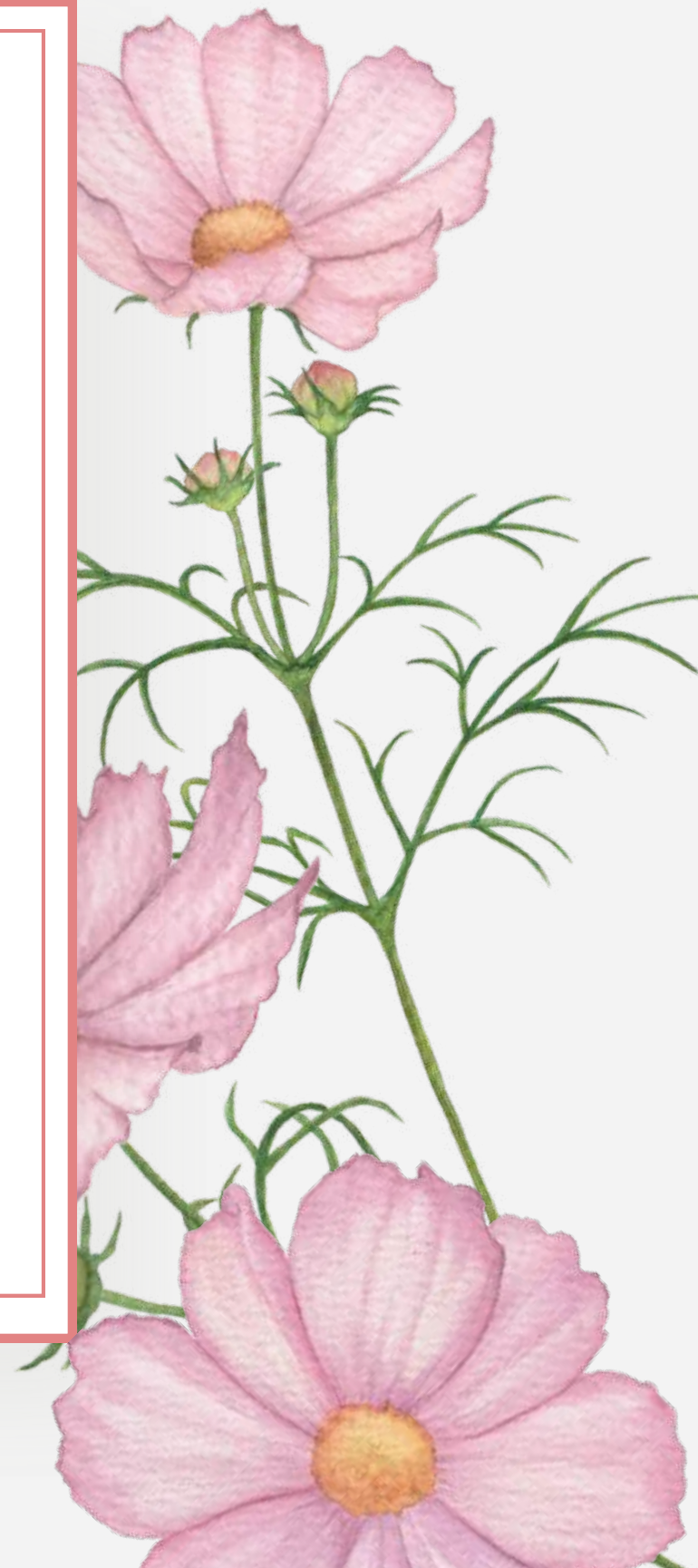


어느 밤, 들판에서 목자들이
양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때 반짝이는 천사가 나타나서 말했어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오늘 구주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목자들은 아주 기뻐했어요.



목자들은 메시아가
아주 힘센 왕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천사는 “강보에 싸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가 메시아라고 알려주었어요.

그때 하늘이 환해지며
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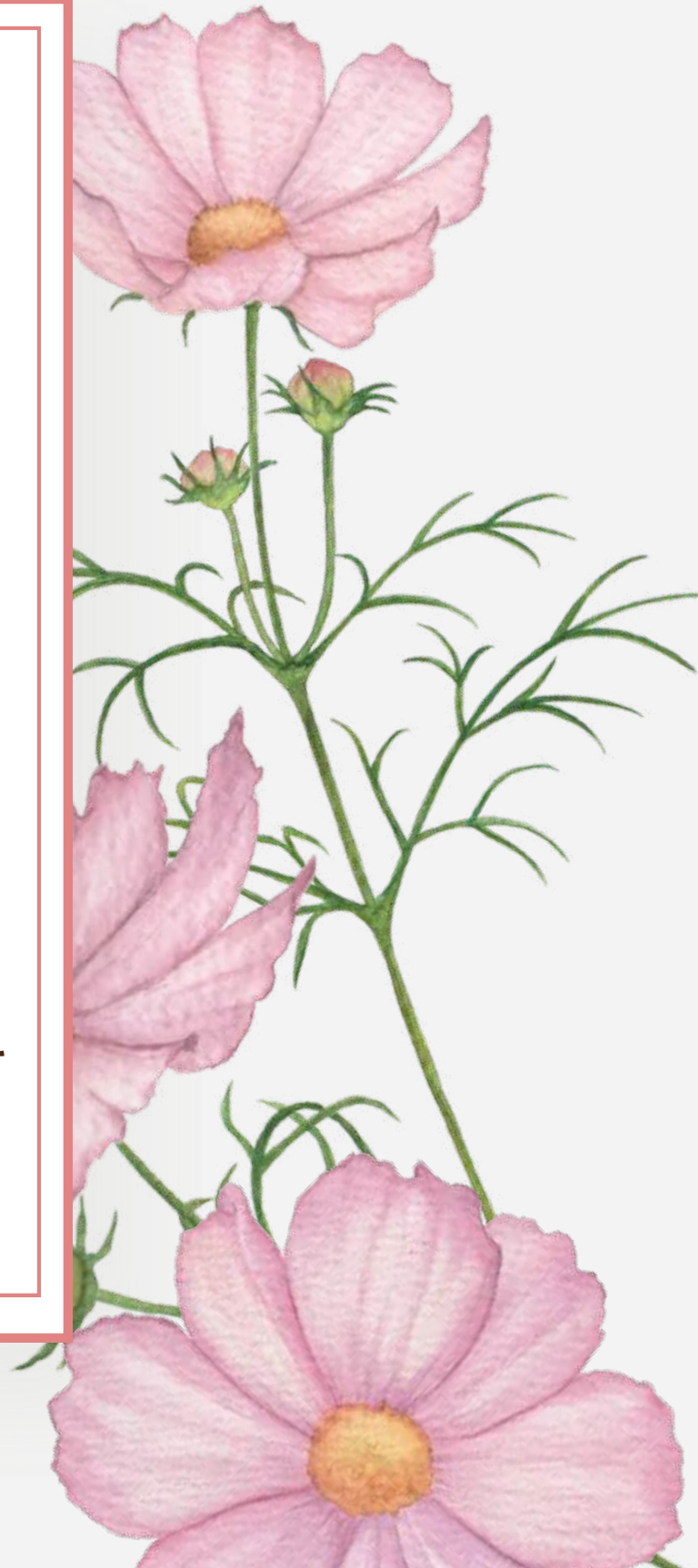
천사들이 사라진 뒤, 목자들은 이 모든 일이
진짜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목자들은 빨리 베들레헴으로 달려갔어요.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님을 발견하고,
무릎을 꿇어 예배했어요.

천사가 말해 준 이야기를
마리아와 요셉에게 전했지요.

너무 기뻐서, 이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꼭 전하고 싶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목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도 쉽게 믿지 못했어요.

"메시아가 마구간에서 태어났다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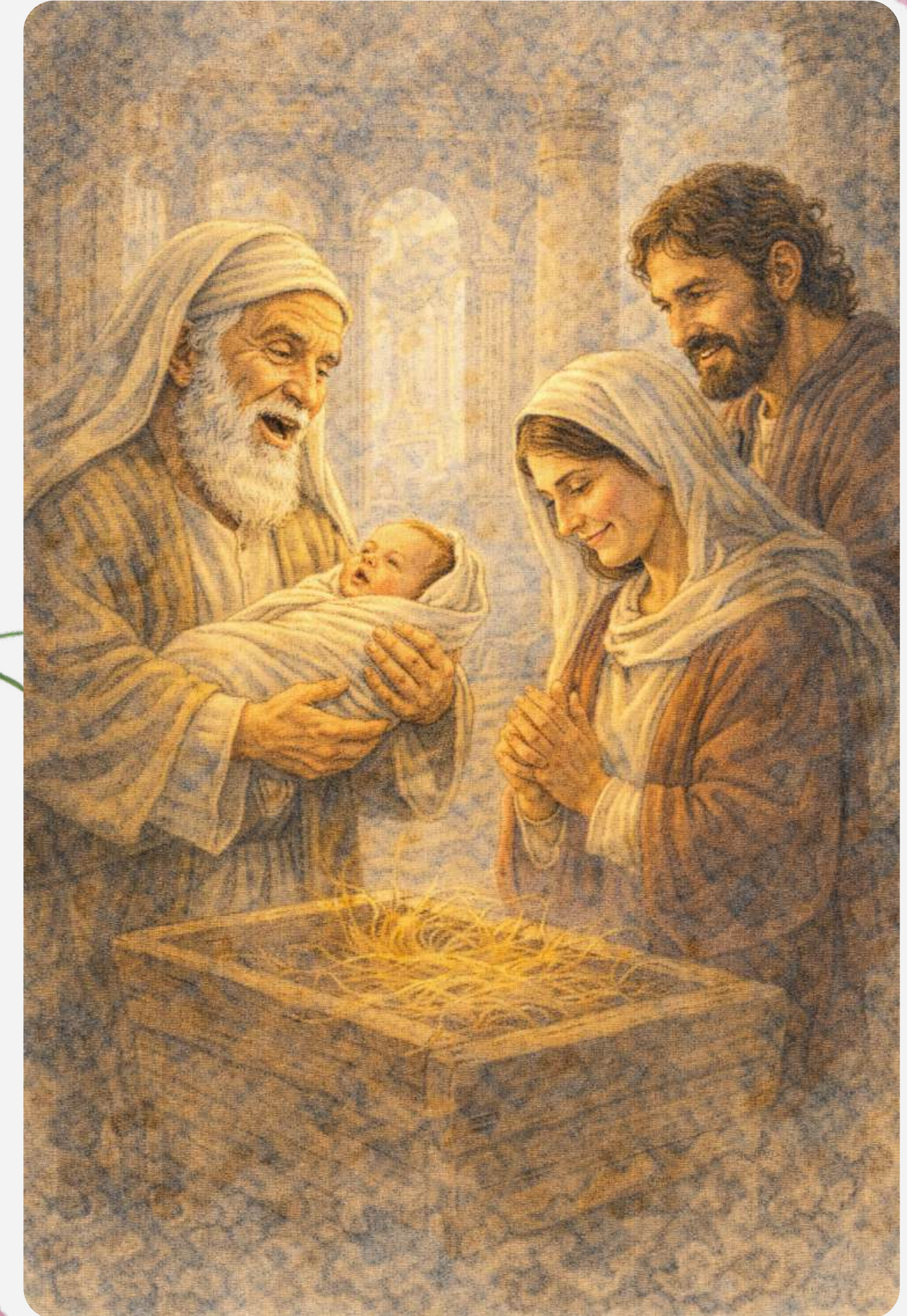
"구유에 누워 있다고요?"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지도자들도 그
소식을 들었지만, 마음만 먹으면 찾을 수
있었는데도 찾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 예수님이 태어난 지 6주가
되자,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 데리고 갔어요.

그날 성전에서 시므온과 안나가 아기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누가복음 2:25-30, 38)



“때가 차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갈라디아서 4장 4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장 알맞은 때에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우리도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행동하라고 부르실 때,
망설이지 않고 때에 맞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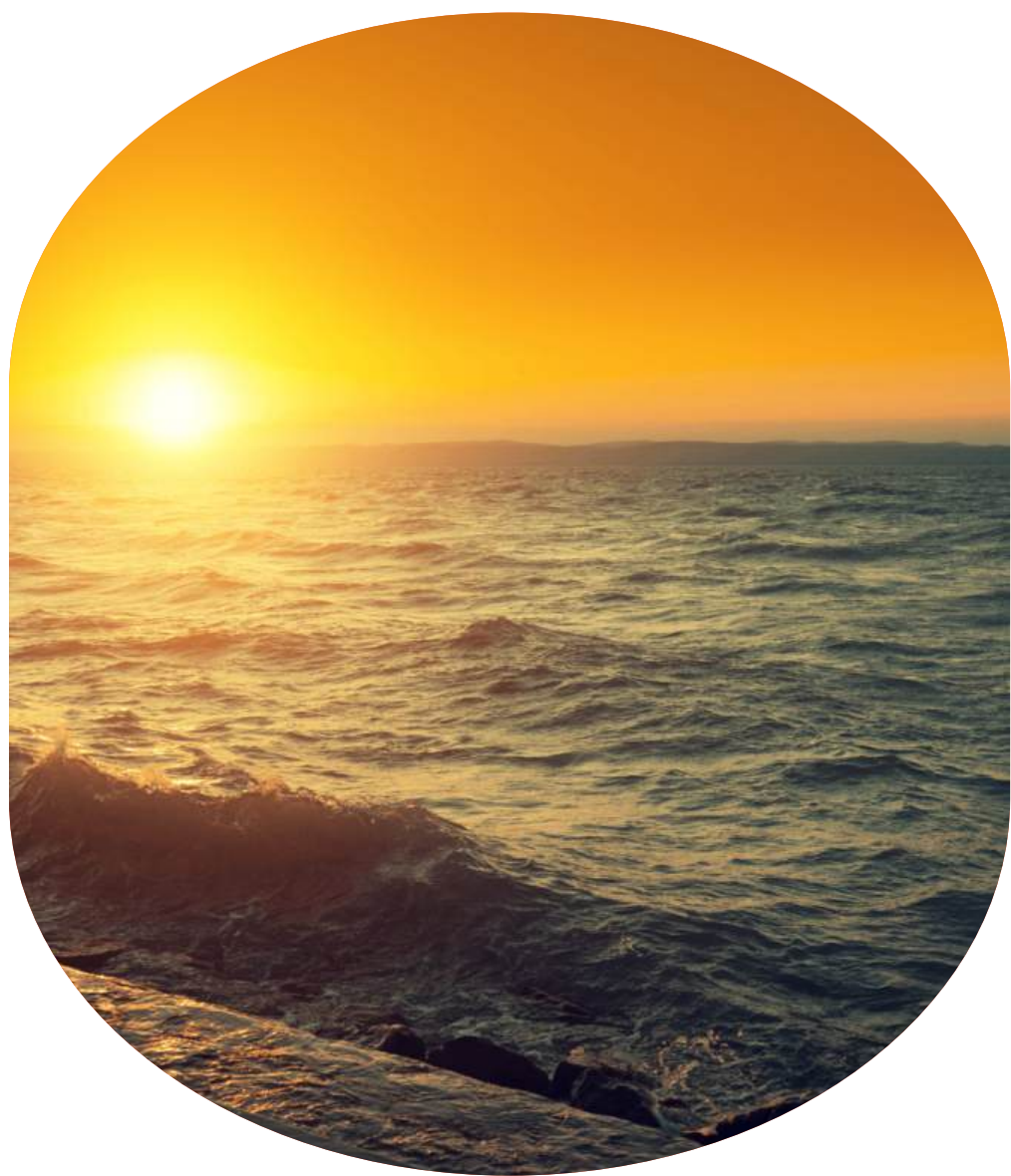
일몰과 일출



해가 뜨고 지는 시간은 계절마다 달라지지만 언제나 정확한 때에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너무 이르지도 늦지도 않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사람들은 해의 움직임을 바꿀 수 없듯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도 사람의 뜻으로 앞당기거나 늦출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완전한 시간 안에서 정확히 이루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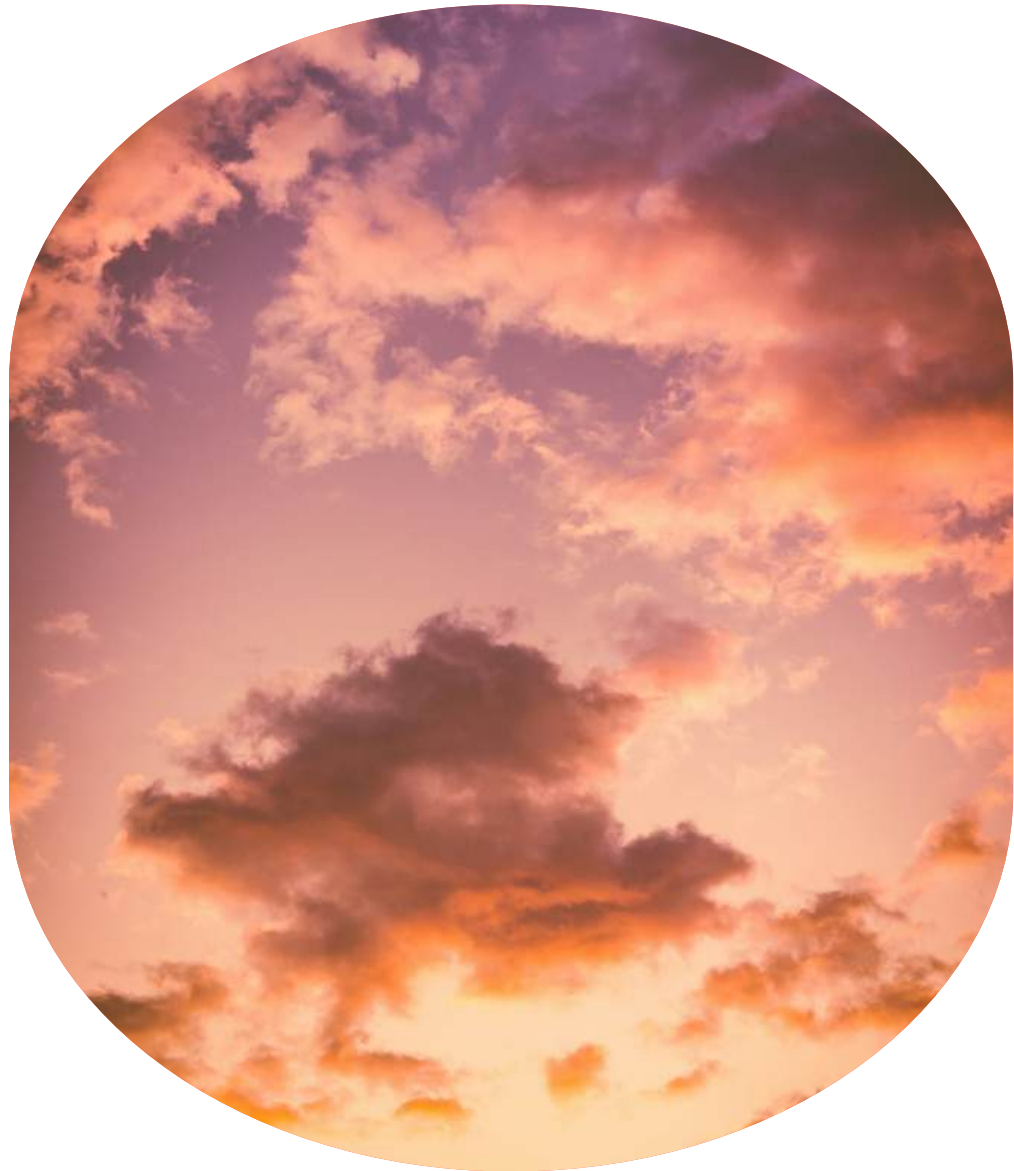
매일 같은 것 같지만 매일 다른 해



아침마다 해가 뜨고 저녁마다
해가 지는 건 늘 똑같아 보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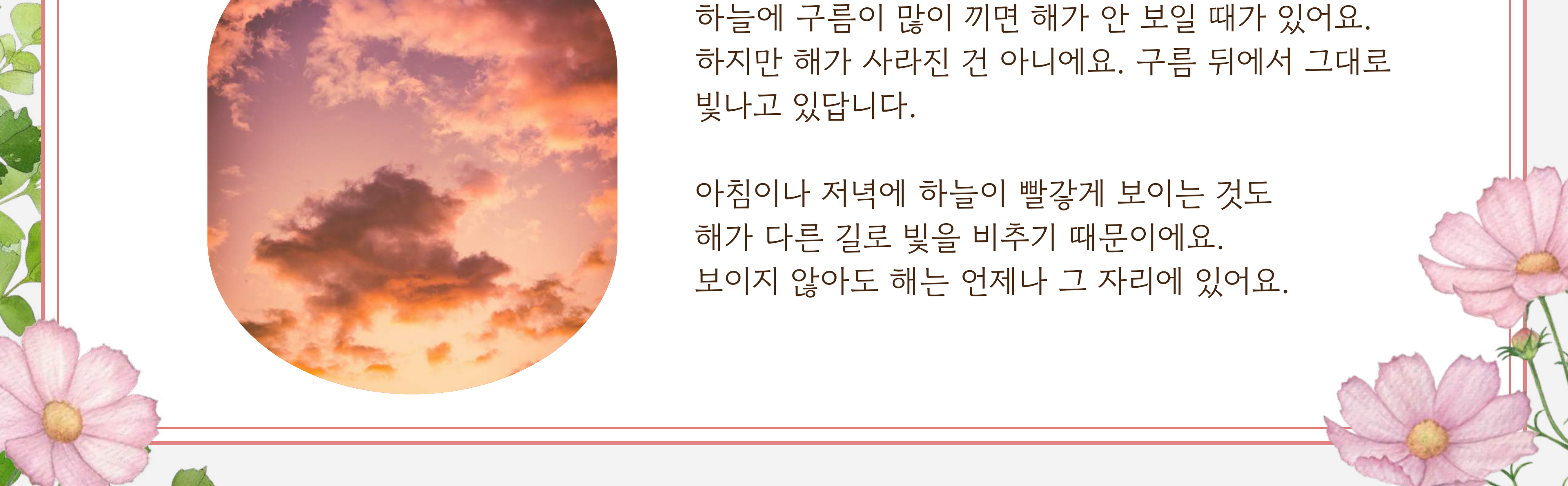
그런데 사실 해는 매일 조금씩 달라요.
어떤 날은 일찍 뜨고, 어떤 날은 늦게 져요.
하늘에서는 매일 아주 정확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름 뒤에 있어도 해는 있어요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면 해가 안 보일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해가 사라진 건 아니에요. 구름 뒤에서 그대로
빛나고 있습니다.

아침이나 저녁에 하늘이 빨갛게 보이는 것도
해가 다른 길로 빛을 비추기 때문이에요.
보이지 않아도 해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요.



계절마다 달라지는 해의 시간



겨울에는 해가 빨리 지고 여름에는 해가 늦게 집니다
이것은 해가 게으르거나 바쁘기 때문이 아니라
지구가 기울어진 채 태양 주위를 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작은 기울기 덕분에 계절이 생기고 농작물은 자라며
생물들은 각자 알맞은 때에 활동할 수 있습니다.

해의 시간 변화는 생명을 살리기 위한 질서입니다

해의 시간은 미리 알 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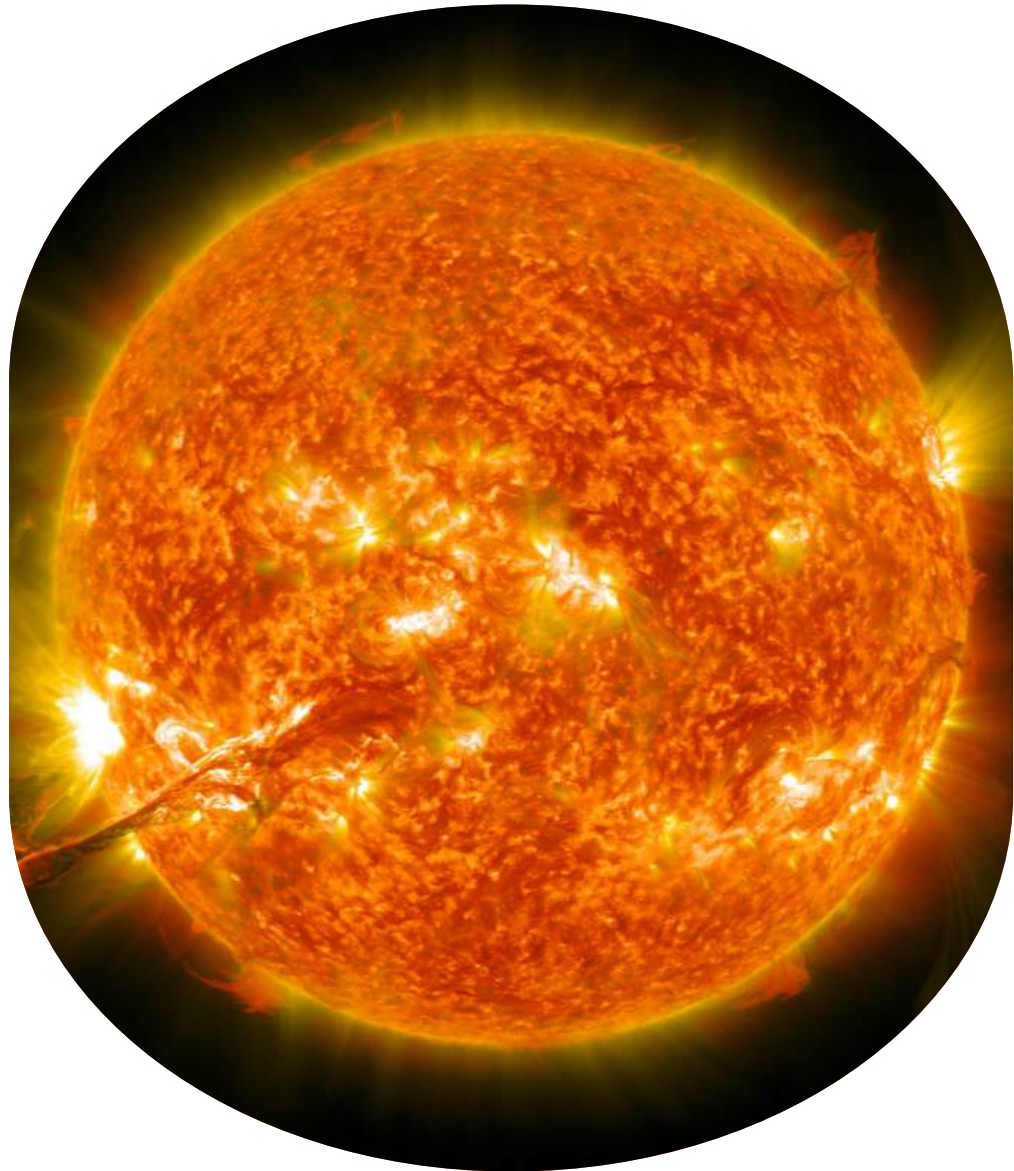


과학자들은 해가 언제 뜨고 언제 질지
미리 알 수 있어요.

해가 늘 같은 질서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을 지키고, 농사를 짓고, 여행도 계획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정확한 세상은 우리를 편안하고 안전하게
해 줍니다.

해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해가 뜨는 시간을 앞당기거나,
지는 시간을 늦출 수 없어요.

해는 늘 정해진 속도로 움직이고,
그 속도는 모든 생명이 살기에 딱 맞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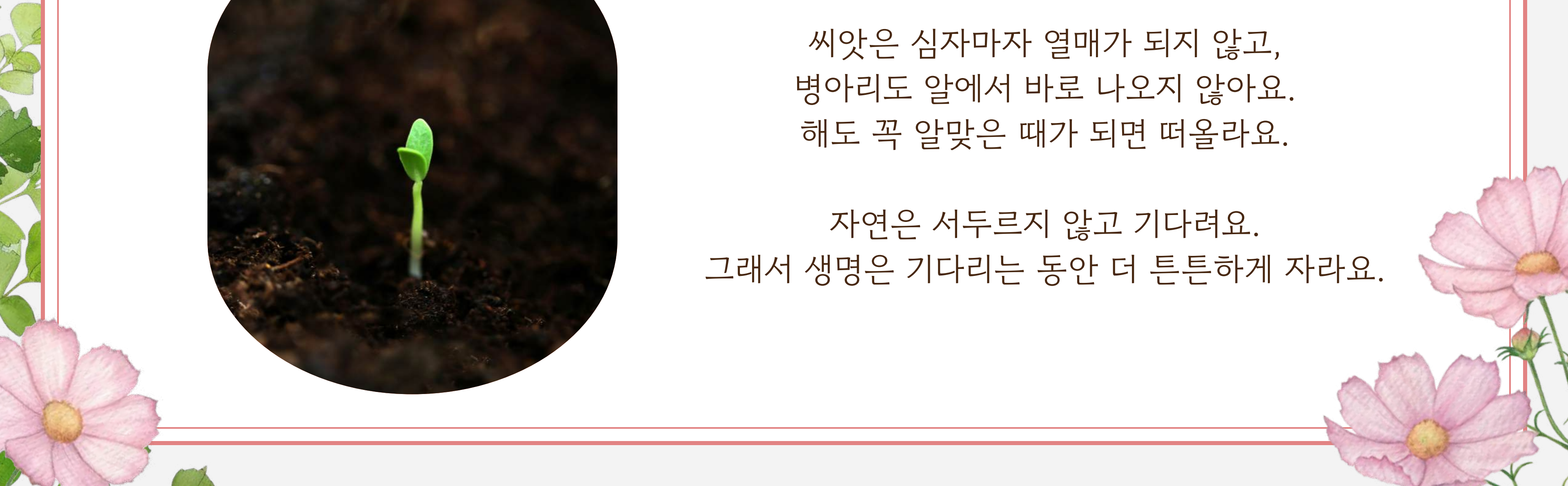
해가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자기 일을 하니까,
세상은 오늘도 잘 돌아가요.

자연은 기다릴 줄 알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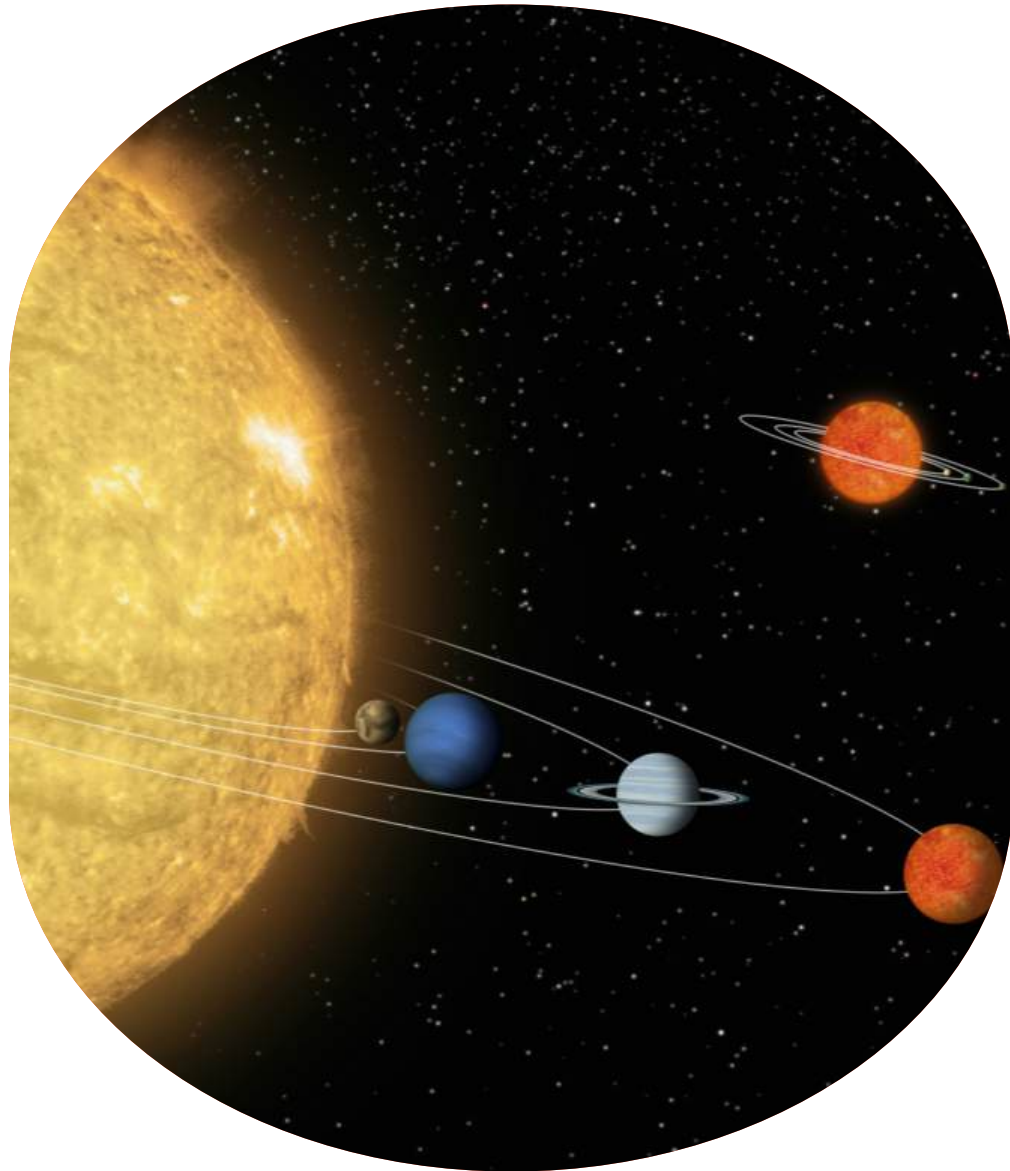


씨앗은 심자마자 열매가 되지 않고,
병아리도 알에서 바로 나오지 않아요.
해도 꼭 알맞은 때가 되면 떠올라요.

자연은 서두르지 않고 기다려요.
그래서 생명은 기다리는 동안 더 튼튼하게 자라요.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늦지도 않게



만약 해가 하루라도 제시간에 뜨지 않는다면 세상은
큰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너무 빠르면 준비할 수 없고 너무 늦으면
기회를 잃습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모든 일에는 알맞은 때와
속도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질서를 신뢰할 때 우리는 안전해집니다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에 오셨어요



성경 회상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준비하지 못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는 한 치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해가 정해진 시간에 뜨고 지듯 예수님도 너무 이르지도 늦지도 않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몰랐지만 하늘의 천사들은 그 순간을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웁니다.

오늘 우리도 해처럼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일출 · 일몰 조사표 만들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때에 맞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고 때에 맞게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출 · 일몰 조사표 만들기

활동 중심

1. 해 뜨는 시간과 해 지는 시간이 제 각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때에 맞춰 질서 있게 우주를 운행하심을 발견하도록 함.
2. 춘분과 추분은 낮의 길이가 12시간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하지는 낮이 가장 길고, 동지는 낮이 가장 짧은 날임을 탐색하고 하나님의 정확한 섭리를 알도록 도움.

일출 · 일몰 조사표 만들기

활동 방법

1. 캘린더 앱 or 생활 천문관 사이트에서 작년의 4대 절기 [춘분, 하지 (6월 21일경), 추분, 동지(12월 22일경) 등] 등을 아이들과 알아보고 일출 · 일몰 시간을 기록한다.
2. 기록한 내용을 막대그래프로 만들어 비교해본다.

참고 사이트(한국 천문 연구원- 생활천문관) : <https://astro.kasi.re.kr/life/pageView/39>

일출 · 일몰 조사표 만들기

활동 방법

3. "하나님은 왜 겨울에는 낮을 짧게 하시고, 여름은 낮을 길게 하셨을까?" 질문에 대해 토의한다. (방향성: 생물의 성장, 휴식 주기 [농사, 동물 이동 등] 등을 조절하여 천연계를 유지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도록 함)
4. 예수님의 탄생과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고백의 기도를 함께 하면서 마무리한다.

일출 · 일몰 조사표 만들기

활동표 예)

절기	일출 시간	일몰 시간	낮 길이 (시간)	발견
춘분				
하지				
추분				
동지				

때에 맞게 행동하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때에 맞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고 때에 맞게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에 맞게 행동하기

활동 방법

각 장면의 그림카드를 보고 때에 맞는 행동과 말을 맞추는 게임이나 역할극을 한다.

* 예시: 밥을 다 먹은 후 > "잘 먹었습니다" / 손님이 갈 때 >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등 상황에 맞는 적절한 행동과 말을 한다.

때에 맞게 행동하기



#1 상황: 친구가 넘어져 울 때

·행동: 재빨리 손 내밀어 일으키기

등을 토닥이기

·말: "괜찮아? 다쳤어? 내가 도와줄게!"

때에 맞게 행동하기



#2 상황: 친구가 장난감을 안 돌려줄 때

·행동: 차분히 기다리며 미소짓기

·말: "나도 놀고 싶어. 같이 나눠 놀자"

때에 맞게 행동하기



#3 상황: 엄마가 피곤해 보일 때

- 행동: 물 한잔 따라주기, 발 마사지
- 말: "엄마 쉬세요. 제가 설거지 할게요"

때에 맞게 행동하기



#4 상황: 동생이 장난감 망가뜨릴 때

· 행동: 화내지 않고 같이 정리하기

· 말: "괜찮아, 다시 만들면 돼. 다음엔 조심해줘"

때에 맞게 행동하기



#5 상황: 새 친구가 어색해 할 때

·행동: 손 내밀어 함께 앉자고 하기

·말: "같이 앉을래?",

"이름이 뭐야? 재밌는 게임 할까?"

때에 맞게 행동하기



#6 상황: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계실 때

- 행동: 먼저 달려가서 들기
- 말: "할머니 제가 같이 들게요",
"할머니 도와드릴게요"

때에 맞게 행동하기



#7 상황: 친구가 숙제를 못했을 때

·행동: 같이 공부를 도우며 격려

·말: "나도 어려웠어. 같이 해보자! 잘할거야"

때에 맞게 행동하기



#8 상황: 버스에서 어른이 서 있을 때

·행동: 자리 양보하기

·말: "여기 앉으세요. 제가 설 거예요"

MY BIBLE FIRST

Thank you

행복하고 거룩한 안식일 보내세요~